



세계를 연결하는 연합뉴스

연합뉴스의 무대는 세계입니다

지금 이 순간에도 연합뉴스의 해외 취재망 60명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
연합뉴스는 한국의 소식을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아랍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로 신속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
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합뉴스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거듭나겠습니다